

SIMPAC STORY

2013 SPRING VOL. 22



SIMPAC'S MESSAGE

SIMPAC메탈로이 송호석 대표이사 인터뷰

발자취를 만든다

우리 회사 터줏대감! - SIMPAC을 평생 일터로 살아 온 SIMPAC인들

최고를 만든다

SIMPAC 품질지원실과 SIMPAC메탈로이 2공장 품질안전팀의 만남

변화를 만든다

Special Column

HOT ISSUE

'DTL4-2500T 트랜스퍼 프레스' 고객 초청 시연회

SIMPAC STORY

2013 SIMPAC STORY SPRING VOL. 22

04 SIMPAC's Message	SIMPAC메탈로이 송효석 대표이사 인터뷰
08 발자취를 만들다	우리 회사 터줏대감! - SIMPAC을 평생 일터로 살아 온 SIMPAC인들
18 최고를 만들다	SIMPAC 품질지원실과 SIMPAC메탈로이 2공장 품질안전팀의 만남
22 변화를 만들다	Special Column
26 Hot Issue	'DTL4-2500T 트랜스퍼 프레스' 고객 초청 시연회
30 What's the Best?	SIMPAC의 DTL4-2500T 트랜스퍼 프레스
32 SIMPAC프렌드	나의 SIMPAC, 나의 한국 생활
35 Letter from SIMPAC인	당신을 칭찬합니다
36 SIMPAC NEWS	SIMPAC 소식
39 다른그림찾기	



SIMPAC을, 가족을, 세상을, 우리를, 행복을, 나를,
 발자취를, 최고를, 변화를
만들다

꿈을 높이겠다. 영어를 안전 정확하겠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

연초에 세웠던 신년계획들, 여러분은 얼마나 실천에 옮기고 있나요? 바쁜 일 끝나고 나면, 여름 지나고 나면 해야지, 라며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며 역시 작심 삼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SIMPAC인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Start 지점으로 주어집니다. 매 순간 순간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보내는 이 하루를 내 인생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드는 것도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와는 다른 나로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 가길 원하나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가능성의 Start 지점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ですよ.

SIMPAC STORY 2013년 SPRING | 통권 22호 | 발행인 최진식 | 발행일 2013년 5월 24일 | 발행처 SIMPAC홀딩스 02-3780-490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 심팩빌딩 13층 | 기획 ㈜리큐더스 02-6011-2000 | 편집 및 디자인 ㈜리큐더스 02-6011-2000 | 인쇄 삼진피앤씨

사보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이승훈 대리 02-3780-4906 gausy@simpac.co.kr
 주SIMPAC홀딩스 권희정 02-3780-4907 hjkwon@simpac.co.kr
 주SIMPAC홀딩스 정제린 대리 032-590-2020 jljung@simpac.co.kr
 주SIMPAC 김학중 대리 032-510-0033 hjjkim@simpac.co.kr
 주SIMPAC메탈로이 선광규 054-271-8724 kgsun@simpac.co.kr
 주SIMPAC메탈 강승삼 041-360-0124 sskang@simpac.co.kr



SIMPAC METALLOY



“
최고의 합금철 전문기업이자
Roll 메이커, ‘SIMPAC메탈로이’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SIMPAC메탈로이’만의 경쟁력 키워나갈 것

새롭게 취임한 SIMPAC메탈로이 송효석 대표이사 인터뷰

5월의 둘째 주 화요일, 경북 포항에 내리니,
살랑 부는 봄바람에 기분이 상쾌하다.
계절의 여왕답게 화사한 봄기운이 가득 묻어난다.
공항에서 차량으로 15분 정도 달리,
포항의 광활한 철강공단에 도착했다.
포항시 남구 괴동동의 SIMPAC메탈로이 사옥
앞에 서니, 신록의 풍경과 어우러져 생기가 감돈다.
활기가 넘치는 날, 사옥 3층 집무실에서
새롭게 취임한 **송효석 대표이사**를 만났다.



집무실 문을 여니 밝은 얼굴의 송효석 대표이사가 일행을 반갑게 맞아준다. 지난 3월에 SIMPAC메탈로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이제 두 달째에 접어드는 그는 요즘 다른 무엇보다도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숨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SIMPAC메탈로이의 일원이 되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철강 경기가 좋지 않아 합금철 생산업체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또 “취임한 지 얼마 안됐지만 회사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해 SIMPAC메탈로이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오랜 시간 쌓아 온 지식과 경험,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반영해 나갈 터**

송효석 대표이사는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박사를 수료하고 포스코 스테인리스 원료개발 그룹장, 포스코 스테인리스 제강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간 쌓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경영활동에 심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가 포스코에서 일했던 경험이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직이 다르고 인재 Pool도 다르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일했던 방식을 우리 SIMPAC메탈로이에 다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기에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선택,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SIMPAC메탈로이에 취임하기 바로 전에 태국 POSCO-타이녹 스테인레스 냉연회사(포스코 투자회사)의 대표로 1년 반 정도 근무한 경험도 있다고. 짧은 기간이지만 회사를 경영했던 경험을 살려 SIMPAC메탈로이의 수장으로서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에서 약 30년을 살았는데 ‘SIMPAC메탈로이’가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신뢰를 받는 회사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한결 같이 고객들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유지해 왔으며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는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기업’의 이미지를 유지해 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직원의 역량 계발과 자아실현, 만족도 위해 힘껏 노력

그는 “SIMPAC메탈로이의 사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매우 밝습니다”라며 “사무실이나 현장의 직원들이 밝은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에서 회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취임 후 받은 인상을 밝혔다. 시장 상황이 어려워질 수록 이러한 SIMPAC메탈로이만의 에너지를 활용해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원가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가진 역량을 계발하고 분야별로 인재 Pool을 가동하여 필요한 사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SIMPAC메탈로이의 수장으로서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향후 직원의 역량 계발과 자아실현, 만족도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당당하게 맞서고 도전하는 SIMPAC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많은 경우를 통해 봐 왔습니다.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해 변화를 만들어 가면서 최고의 합금철 전문기업이자 Roll 메이커, ‘SIMPAC메탈로이’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도록 힘을 더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항상 웃을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거듭 다짐하는 송효석 대표이사의 말에서 ‘봄날의 희망’ 처럼 밝은 ‘SIMPAC메탈로이’의 미래가 그려졌다.



“ 새로운 변화에 당당하게 맞서고 도전하는 SIMPAC인이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해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



발자취를 만들다

우리 회사 터줏대감! - SIMPAC을 평생 일터로 살아 온 SIMPAC인들

- 01. SIMPAC 생산팀 공정관리파트 김종국 계장
- 02. SIMPAC메탈로이 1공장 생산 김홍락 기장
- 03. SIMPAC메탈로이 2공장 생산 공무반 이소연 주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직과 퇴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신의 일터를 떠날 줄 모르고 묵묵하게 주어진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SIMPAC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각 사의 터줏대감들.
 그들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는
 하나의 발자취를 남길 것이다.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슴에 품고!

SIMPAC의 밝은 내일, 나의 가장 큰 보람

SIMPAC 생산팀의 공정관리파트 김종국 계장

SIMPAC 생산팀의 공정관리파트 김종국 계장은 1982년에 입사했다. 2013년 6월이면 입사한지 만 31년 4개월이 되는 김종국 계장은 SIMPAC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오랜 기간 회사의 발전과정을 함께 했다. 회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진 김종국 계장으로부터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들어보자.





길을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나를 길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에게 처음 SIMPAC에 입사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김종국 회장은 과거를 더듬듯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사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아는 분이 월미도에 있는 진도산업에 오라고 했지만, SIMPAC의 전신인 동성개발공업에 입사했지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82년도에 입사했으니 상당히 오래 전 일인데 그 당시 주 업무는 무엇이였을까. "처음 입사했을 때는 지금처럼 프레스에 주력하기 보다는 차량용 클러치, 연료탱크 같은 걸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당시에 동종업계 다른 회사보다 우리 클러치가 훨씬 좋았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클러치에 주력했으면 프레스만큼 잘 팔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에 깊은 연륜이 묻어난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 몸 담았으니 다양한 경험도 해보았을 것. 김종국 회장은 "대부분의 부서를 한번씩 거쳐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LPG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초저온 용기인 액상 산소통도 만들어 보고, 초저온 용기 다음에는 주차설비도 만들었죠. 당시에 서울에 가면 아무데나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주차 설비를 만들어 준 빌딩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이후에는 구매팀으로 갔다가 생산팀으로, 또 다시 구매팀에 갔다가 생산팀으로 돌아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만큼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았지만 제게 맞지 않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을 나에게 맞추기 보다는 스스로를 일에 맞춰 노력해야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도전해 이뤄내는 정신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IMPAC이라는 이름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며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물었다. "초반에는 초저온 용기를 만들었어요. 산소통 아시죠? 절단용으로 주로 쓰는 초저온 용기인데 두꺼운 철판을 절단할 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초저온 용기 한 통이면 병원에서 쓰는 작은 병을 20~30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종국 회장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초저온 용기를 만들지 못해 해외 제품을 수입해 썼다고 한다. 한국비료라는 회사의 경우는 일본과 기술 제휴를 맺어 생산하고 있을 때였는데 SIMPAC이 바로 그 기술을 먼저 개발해냈다고. "일본에 직접 가서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우리 손으로 초저온 용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와서 개발에 성공해 수출까지 한 건 우리밖에 없었어요. 주요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할 정도의 성과였습니다. 덕분에 겨우내 두 달쯤 집에 못 들어가고 공장에서 먹고 자며 고생했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었 것 같습니다." 김종국 회장의 얼굴이 뿌듯함으로 붉게 상기되었다.

2001년 SIMPAC으로 상호가 바뀌고, 쌍용정공에서 분리 독립하고 난 뒤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물었다. "아무래도 경영상태가 흑자로 전환되고 매출이 늘어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쌍용정공 시절에는 흑자가 났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SIMPAC으로 바뀌면서 매출이 늘고,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서는 제일 먼저 우리 팀하고 회식을 하셨지요. 모두가 열심히 일한 만큼 연말에 성과급이 나왔을 때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무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전과 비교하자면 무척 깨끗해졌습니다. 건물이 무척 낡았는데 사무동을 새로 지으면서 탈의실도 쾌적해지고 헬스장도 생겼다는 게 눈에 띄게 달라진 점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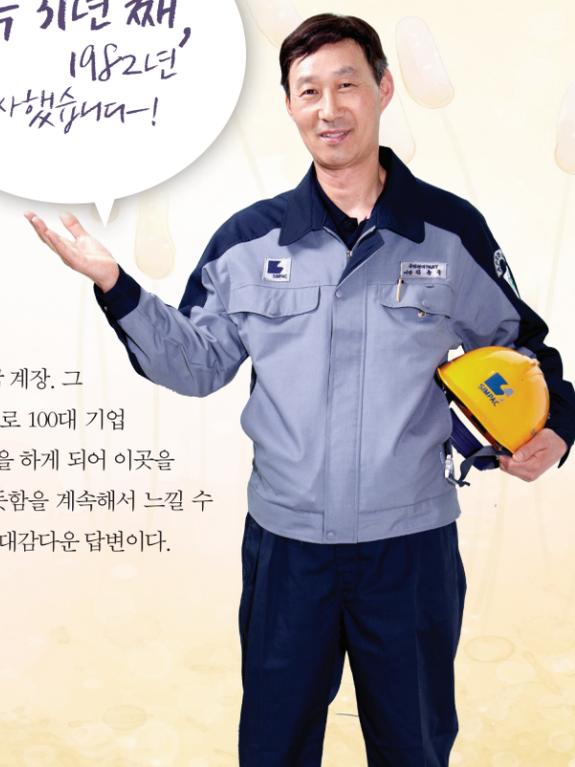
SIMPAC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세월을 근무한 만큼 일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을 터. 그런 그에게 업무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물었다. "저는 일을 할 때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힘들 때 이해하고 도와주려면 소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지, 실제로는 참 어려워요. 예전에는 기술을 알면서도 서로에게 가르쳐 주지 않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기술을 갖고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김종국 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람은 더불어서 살아야 해요. 자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아는 걸 나누어 줘야 합니다. 소통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전부 주려는 게 아니라, 일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서로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일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먼저,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량물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 없이 내일은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사뭇 진지해진다. "둘째로, 배우려는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릴 때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아무리 잔소리 해도 본인이 맘 먹지 않으면 하지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동해야 하는 거예요. 회사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명이 들어와도 다 달라요. 하나 가르쳐 주면 둘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 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 일단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성의 있게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근속 31년 재,
1982년
입사했습니다!

가 입사한 신입사원처럼 아직도 두 눈이 열정으로 반짝거리는 김종국 회장. 그의 미래 소망을 물으니 "저의 소중한 일터 SIMPAC이 회장님 말씀대로 100대 기업에도 들어가고,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이곳을 떠나게 되더라도 '내가 다닐 때보다 더욱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회사의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터줏대감다운 답변이다.





나의 유일하고도 자랑스러운 일터!

사회의 첫 발과 마지막 발을 한 곳에서,
SIMPAC메탈로이 1공장 생산 김홍락 기장

“10년의 세월이 흐르면 강산이 한 번 바뀐다고 한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이다.
SIMPAC메탈로이 1공장 생산 김홍락 기장은
한 회사에서 35년을 근속했으니, 스스로도 감개무량할
것이다. 그는 “강산이 세 번만 바뀌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라고 수줍게 말했다.
SIMPAC메탈로이 사옥에서 만난 김홍락 기장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지난 시절을 회고했다.



1970년대,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절,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20대 청년은 야심만만했다.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며 인정받는 직원이 되고 싶었다. 월급을 착실하게 모아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러던 중 1978년 10월 1일, 청년은 ‘한국합금철공업주식회사’에 입사하게 된다. 이후 ‘한합산업’, ‘SIMPAC ANC’, 그리고 현재의 사명인 ‘SIMPAC메탈로이’가 되기까지 그는 35년째 한 회사에 몸담게 된다. 그 청년이 바로 지금은 50대 장년이 된 김홍락 기장이다. 올해 연 말에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올해를 끝으로 청춘을 바친, 인생의 절반을 넘게 보낸 회사 생활을 마감하는 것이다. “제가 입사하던 시절에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불안정해서 이직이 많았습니다. 6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신입사원들이 ‘한 회사를 왜 6년이나 다니세요?’라고 물어볼 정도였지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100% 만족은 없지만, 언제나 제 능력이 닿는 한 성심을 다해 일했습니다. 특히 회사 동료와 선후배 간에 원만하게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업무 능력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월급 미뤄진 적 없어, 고마운 직장

김홍락 기장은 2011년부터 전기로 생산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근무 시설이나 후생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좋아졌다고 말한다. “저희가 일하는 작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초창기에는 변변한 샤워시설조차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직원들이 일하기에 무척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또 하나 회사에 고마운 것은 ‘월급이 단 한 번도 미뤄진 적 없다’는 것을 꼽았다.





“연차가 쌓이고, 선배가 되면서 보니 나이가 많고 적응이나 경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후배들에게 강조해 온 것이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늘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 왔습니다. 덕분에 적응이나 생활비지출 등을 계획대로 꾸려가면서 자식들을 잘 키우고 가정을 건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이라면 누구나 이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맙고 귀한 일일 것입니다.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가정도 꾸리면서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던 것은 모두 이런 ‘일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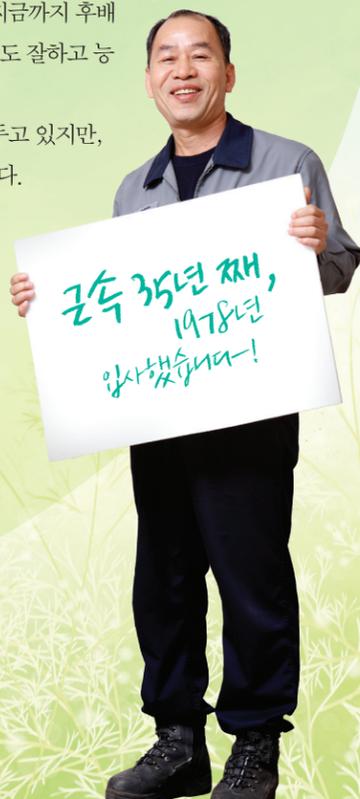
작년에 첫 손주를 봤다는 김홍락 기장은 “아기가 한창 재롱을 떠는 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라며 얼굴에 웃음꽃을 가득 피웠다. 아직 미혼인 딸 하나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금의 소망이라 한다.

후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강조

그는 “3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 나름대로의 원칙이 생겼습니다.”라면서 “연차가 쌓이고, 선배가 되면서 보니 나이가 많고 적응이나 경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후배들에게 강조해 온 것이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인성이 갖춰진 사람이 일도 잘하고 능력도 발휘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도 원만한 ‘진정한 직장인’이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김홍락 기장.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한다.

“사회의 첫 발을 SIMPAC메탈로이에 들여놓았고, 마지막도 SIMPAC메탈로이입니다. 제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는 회사이기에 영원히 그 고마움과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근속 35년 재,
1978년
입사했습니다!



회사란 나란
함께 성장하니 행복!
투트!

후배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로 남고파

SIMPAC메탈로이 2공장 생산 공무반 이소연 주임

처음 만나더라도, 표정에서 벌써 친근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SIMPAC메탈로이 2공장에서 최고참으로 있는 이소연 주임이 그렇다. 처음엔 얼핏 이름만 보고 ‘여성인가?’ 생각했는데, ‘사람 좋은’ 얼굴로 나타난 건장한 ‘남성’ 이소연 주임이었다. 여자 이름이라 어려서부터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그는 ‘**근속 20년**’이라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여유와 낙천적인** 면모를 가진 SIMPAC인이다.



“모든 직원들이 얼른 출근하고 싶은 회사, 열정을 다해 일하고 싶은 일터-SIMPAC 메탈로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회사에서 근무하는 마지막 날까지 후배들에게 배울 점이 있는 선배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해마다 발전하는 회사, 구성원으로서 뿌듯하고 보람 느껴

봄 햇살이 유난히 반짝이는 날, 점심 식사 후 편안한 기운이 감도는 오후에 SIMPAC메탈로이 사옥 1층 접견실에서 새로 만나게 될 SIMPAC인을 기다린다. 씩스러워 하며 접견실로 들어 온 이소연 주임은 자리에 앉으면서 소탈한 웃음을 짓는다. 그의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로 말문을 트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와 웃음이 오갔다. 고향인 강원도 삼척에서 1983년 포항으로 온 뒤 포스코 협력사에 9년간 근무했다는 이소연 주임은 올해로 포항에 온지 30년, SIMPAC메탈로이에 근무한지는 꼭 20년이 되었다고 한다.

“1993년 1월 1일부로 SIMPAC메탈로이(당시 한합산업)에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이 회사와 함께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못지 않은 젊은 패기와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었죠.”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근무 환경의 달라진 점을 묻자 그는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현장이 어수선하고 작업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늘 긴장한 상태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회고했다. 그렇지만

“근무환경 개선작업과 안전 교육이 철저히 이뤄지는 등 꾸준한 ‘QSS 활동’이 계속되어 지금의 SIMPAC메탈로이는 사고율 0%에 가깝습니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동료들과 함께 한 야유회나 체육대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어

“지금까지 일하면서 업무에 대한 불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일이 많은 적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모든 직원의 의무일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일을 맡게 되면 더욱 의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회사가 잘 돼야 우리 직원들도 잘 되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일거리가 많을수록 더욱 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소연 주임은 “이전과 비교해 직원들의 복지 후생이 점차 좋아지고 회사가 해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성원으로서 참 뿌듯하고 보람찬 마음입니다.”라며 미소 지었다. 그는 또 SIMPAC인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하는 야유회와 체육대회를 즐거운 기억 중 하나로 꼽았다.



“SIMPAC메탈로이의 야유회와 체육대회는 동료, 선후배들이 한데 어우러져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현장 근무에서는 협동과 팀 워크가 중요한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 동료애를 쌓고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연 주임은 “협동심을 발휘하여 업무 성과를 높이고, 동료 간에도 허물없이 잘 지내는 것은 직장생활에 있어 참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후배들에게 배울 점이 있는 선배로 남고 싶어

SIMPAC메탈로이에 입사했을 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어느덧 50대 초반이 되었다는 이소연 주임, 20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어느 새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지만 아직은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체력적으로도 젊은 시절 못지 않다고 자부한다.

“그 동안 SIMPAC메탈로이에서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어느새 20년이 흐르고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배들이 현장에서 흘린 땀과 열정이 후배들에게 이어져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춘을 바쳐 일한 회사를 언젠가 떠나게 된다고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소연 주임은 “모든 직원들이 얼른 출근하고 싶은 회사, 열정을 다해 일하고 싶은 일터-SIMPAC메탈로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회사에서 근무하는 마지막 날까지 후배들에게 배울 점이 있는 선배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근속 20년 재,
1993년
입사했습니다!

SIMPAC
품질지원실
한완수 사원

최고를 만든다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위해 우리의 힘을 더하겠습니다!

SIMPAC 품질지원실의 한완수 사원과 SIMPAC메탈로이 2공장 품질안전팀의 김종원 사원이 만나다

2009년 입사 동기인 SIMPAC 품질지원실의 한완수 사원과 SIMPAC메탈로이 2공장 품질안전팀의 김종원 사원이 만났다. 이들은 부평과 포항이라는 먼 거리를 훌쩍 뛰어넘어 품질관리라는 공통된 업무에 대해 이야기 꽃을 피웠다. '최고 품질을 위해 우리의 힘을 더하겠다'는 주제로 두 SIMPAC인이 나누는 다부진 대화를 들어보자.

몸 담고 있는
팀의 주요업무를
설명해주세요.



한완수 : SIMPAC은 프레스를 납품합니다. 때문에 SIMPAC 품질지원실에서는 프레스를 조립하기 전에 부품이 입고되면 부품검사부터 합니다. 조립이 이루어지는 공정과정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또 검사를 하게 되지요. 제품이 출하된 다음에 공단의 심사를 받을 때에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프레스를 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원 : 저는 영업팀에 있다가 품질안전팀으로 배치를 받은 지 이제 석 달째여서 아직 완벽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기본적인 품질관리 업무는 SIMPAC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SIMPAC메탈로이 품질안전팀에서도 생산라인에서 필요한 부품입고검사, 공정검사, 완료검사 등의 품질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안전관리 및 환경 관련 업무, 혁신활동인 QSS도 담당합니다.

한완수 : 이야기를 들으니 생산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점이 많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저희 품질지원실 구성원은 총 16명입니다. 많기는 하지만 그만큼 필요한 인원들이죠. 기본적으로 SIMPAC메탈로이 품질안전팀과 같이 사내에서 진행되는 공정검사사단과, 완제품 검사에는 누구든 투입되는 시스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단의 심사를 담당하는 사람, 사내에서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사람, 부품별 소재별 담당하는 사람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수출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대외업무팀과 함께 출장을 가기도 하고, 계열 회사에 상주하기도 합니다.

김종원 : SIMPAC메탈로이 품질안전팀은 팀장님과 주임님, 그리고 저까지, 단출하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오늘처럼 제가 자리를 비우는 날이면 영업부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함께 해주시는 등 부서 간 협업이 잘 이루어 집니다.



SIMPAC메탈로이
2공장 품질안전팀
김종원 사원

팀 내 선임들에게 배우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종원 : 영업부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일했는데, 품질안전팀에 와보니 다른 것 보다 꼼꼼한 업무처리가 가장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광식 팀장님은 오타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철저함을 갖고 계십니다.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기지 않는 모습들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환하게 밝힐 만큼 잘생기셨지요(웃음).

한원수 : 저희 팀은 다른 팀과 업무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고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지요. 품질지원실에는 타 부서에서 일하다가 오신 선임들이 있기에, 다른 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선임들의 경험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되지요.



업무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나요?

김종원 : 저는 품질관리에 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한원수 사원의 이야기는 어떤지 듣고 싶네요.

한원수 : SIMPAC은 부품을 사오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이 항상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품이 잘못되었을 때 품질지원실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버지뻘 되는 업체 사장님들과 언쟁해야 할 때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풀기는 어려워도, 다음 번에 차를 한 잔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던가, 회의를 하면서 풀어냅니다.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앞으로 팀 내에서 역할을 더 잘해 내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한원수 : 프레스는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계속해서 다른 제품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검사하는 방향이라던가 포인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검사가 요구될 것이고, 제가 대응을 잘 하려면 공부를 종합적으로 더 해야겠지요. 3년 동안 근무했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거든요. 회장님께서 독일의 최고 업체들과 경쟁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저희들도 계속 공부하며 성장해 나가야겠습니다.

김종원 : 석 달째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야겠지요. 특히 영업팀에 있었던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다른 부서의 생산이나 영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워나가려 합니다.



한원수 : 이번에 인도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결심한 것인데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해외영업팀이 같이 가긴 하지만 저를 위해 통역해 주려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내 영어 수업을 듣고 있고, 전화 영어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느껴져 뿌듯한 기분입니다.

김종원 : 매일 포항에서 근무하다가 인터뷰를 위해 인천에 올라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영자신문도 읽는 모습을 보니 자극이 많이 되더군요. 저도 입사하고 2년 동안은 열심히 자기계발을 했는데, 회사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금 자기계발에 박차를 가하고 싶습니다.

TALK+TALK

변화를 만들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

살아남기 위한 BEST STRATEGY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말을 되새겨 볼 때이다.
살아남기 위해 외부의 변화에 적응하고,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 갈 시점인 것이다.



살아남으려면 변화하라!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가 지난 한 세기 동안의 기업수명을 조사했다. 기업의 생명은 놀라운 속도로 짧아지고 있다. 1935년에는 90년이었지만 1970년에는 30년으로 줄었다. 2005년에는 15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과를 놓고 보면 치열한 경쟁터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얼마 없다는 뜻이고, 설령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1965년의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서 1995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나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발전한 기간을 생각해 보라. 세계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이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진 기업들

美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평균수명은 40년에 불과하다. 한국 상장기업의 수명은 20년이 채 못 된다.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한 많은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도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또는 자신들이 변화에 적응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시티폰'을 기억하는가. 무선호출기인 '삐삐'를 이용하기 위해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야 했던 당시, 시티폰에는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다. 하지만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이동하는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한 시티폰 투자자들은 모두 손해를 보았다. 우리나라 조미료의 고유명사였던 '미원'도 어느 순간 '다시다'에게 추월 당했다. 다시다가 미원의 아성을 누를 수 있었던 이유는 조미료가 몸에 좋은지 아닌지 따져보기 시작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몸에 좋은 천연 조미료'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흑백과 컬러 필름 시대에 최고의 기업이었던 코닥이나, 즉석사진의 최고봉이었던 폴라로이드는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한 공룡으로 남아 버렸다. 일본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견인차였던 전자제품의 절대강자 소니도 몰락했으며, 게임업계의 최고라 자부하던 닌텐도도 하루 아침에 같은 신세가 되었다.

재빨리 변화하며 살아남은 기업들

소니가 최고였을 때, 삼성전자가 소니를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기업들의 운명은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엇갈린다. 미국의 종합화학회사 듀폰이 200년 장수기업이 된 이유는 신기술에 대한 선행 투자와 취약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요한 고비마다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IBM은 한 해 90억 달러의 손실을 내며 위기에 몰렸지만 핵심사업인 PC사업까지 매각하며 솔루션 제공자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애플은 아이팟이 선풍적 인기를 끌며 시장을 주도할 때에도 안주하지 않고 후속 제품인 아이팟 나노에 이어 2세대, 3세대 제품을 내놓으면서 계속 시장을 지배했다. 이처럼 시장의 변화에 발맞춘 기업들은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국내에도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며 승승장구하는 기업들이 있다.

중소기업인 명화금속은 50년간 나사만 만들어온 기업이다. 나사 기계에 관련된 특허만 156개에 달한다. 초기에는 건축용 나사를 주로 생산했지만 지금은 자전거용 나사, 자동차용 나사, 컴퓨터 용 나사, 항공기의 나사까지 만든다.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에 발맞추며 지금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원유와 가스의 시추작업을 하는 드릴십(Drillship)은 가격이 1조원에 이르는 초고가 선박인데, 삼성중공업에서 전 세계 42%라는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시장에 10년 먼저 진출하면서 변화를 선도했기 때문이다.



사자와 도도새에게서 배우는 교훈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는 확률은 겨우 20~30%이다. 사자의 먹잇감이 사자보다 뛰는 속도가 더 빠르거나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계속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도 생존이 쉽지 않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생존율이 사자의 사냥성공률과 닮았다. 지난 2000년 창업한 기업의 10년간 생존율이 29%에 불과하다.

지난 10년을 돌아보자. 아이리버는 한때 국내 MP3플레이어 시장점유율 70%, 세계시장 점유율 30%에 육박하는 기업이 었다. 당시에는 사과를 베어 무는 광고를 낼 정도로 위세 등등하던 애플의 경쟁사였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팟 플레이어에 무참히 밀려났다. 박카스는 비타 500에 시장 전체를 내주었고, OB맥주도 하이트에게 자리를 빼앗겼다.

‘살아남는 좋은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니며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찰스 다윈이 한 말이다. 지속적인 생존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기업 내부의 변화속도가 기업 외부의 변화속도에 추월 당하면 그 기업은 사라진다.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변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된다.

도도새는 인류에 의해 멸종된 새다. 지상낙원이었던 자신의 영역에 인간과 가축들이 들어오자 도도새는 살아남지 못했다. 기업이 자신의 생태계에서 발 빠르게 변화해 살아남으려면, 신속하게 대처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P&G는 2000년, 주가가 반으로 폭락했지만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특허와 기술력을 공개하고 외부의 아이디어를 내부로 도입했다. 혁신적 기술도 저렴한 비용으로 외부에서 도입하면서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애플은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앱스토어를 개방해서 수많은 사람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 애플은 시장을 구축해놓고 간섭은 하지 않는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혁신의 유전자가 있는 기업이어야 살아남는다’고 했다. 유연성, 끊임없는 혁신, 균형과 협업을 통한 망상조직의 활성화 등 변화 가속도시대에 맞는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조직과 조직구성원 모두를 위한

HOW TO CHANGE

진정한 안정을 원한다면 늘 변화하라. 가슴속에 비전을 품고, 매일 작은 성공의 기록들을 쌓아 올리며, 꾸준히 열정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다.

조직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조직이 변화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 변화하려는 방향의 적합성이다.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이다. 올바른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많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때로는 외부의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정된 변화의 방향에 따라 조직을 혁신하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이 변화의 방향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변화를 실현해야 하고, 이루어진 변화를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변화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

변화에 성공하는 조직은 공식적인 데이터의 수집이나 분석, 보고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같이 사고를 바꿈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중점을 두지 않

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조직의 리더가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볼(see) 수 있도록 하고, 조직 구성원의 감성(feel)에 호소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어느 기업에서 구매과정 효율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한 임원이 장황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대신 회사에서 구매하는 장갑을 종류별로 한 켤레씩 사다가 늘어놓았다. 그는 회의실 탁자 위에 장갑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임원들을 불러모았다. 모여든 임원들의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뭘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장갑을 사고 있었어? 도대체 제 정신으로 할 일이야?” 게다가 같은 장갑을 구매하면서도 공급 업체별로 각기 다른 가격을 지불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날 이후 임원들은 바로 행동을 시작했다. 조직의 구매과정이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변화했음은 물론이다.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리더는 변화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문제와 해결안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갑에 대한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신 장갑 자체를 보여주는 식이다. 유능한 리더는 조직원들이 동감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간다.

조직의 리더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느냐, 사멸하느냐를 좌지우지 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스스로 변화하는 사람이자, 출신수법을 통해 조직원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조직에는 근시안적인 손익만 따지는 현재형 관리자 대신 비전을 갖고 변화를 주도할 미래형 리더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리더가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는 힘

변화는 조직 구성원 모두의 임무다. 경쟁력 있는 구성원이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

쟁력도 조직의 경쟁력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해야 유지할 수 있다.

직장생활은 30대까지 자신의 역량으로 유지하고, 40대에는 자신의 인맥으로 유지하고, 50대에는 이전에 쌓은 덕, 그리고 60대 이후엔 건강으로 유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전문 가적인 업무 역량은 기본이다. 인격과 건강까지 고루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재가 되어야만 변화하는 조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변화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변화는 힘들다. 수많은 불편과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험겨운 자신과의 싸움이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외부의 저항세력들과의 싸움이다. 미국의 작가이자 명상 전문가인 알렌 코헨은 “모험 속에 안정이 있다. 움직이는 것에 생명이 있으며, 변화에 힘이 있다.”고 말했다.

진정한 안정을 원한다면 늘 변화하라. 가슴속에 비전을 품고, 매일 작은 성공의 기록들을 쌓아 올리며, 꾸준히 열정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다.

BOOK FOR YOU

변화를 원하는 당신에게 권합니다



스위치

손쉽게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설계의 힘
집 히스 먼 히스 지음

변화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수영복을 벗지 게 소화하고 싶은 이성과 야식을 먹고자 하는 충동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한 달 동안 굶어가며 다이어트라도 해야 하는 걸까,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민하지 말지어다. 당신은 단지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기만 하면 된다. 히스 형제에 의하면 우리가 팝콘을 많이 먹게 되는 이유는 식탐 때문이 아니라 단지 팝콘 통이 커다랄기 때문이니깐. 그러니 변화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팀장과 부하직원, 부모나 자식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자. ‘카리스마’라던가 ‘정신력’같은 지겨운 단어들 대신, 변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이 책 한 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SIMPAC'이라는 이름의 저력을 확인하다

'DTL4-2500T 트랜스퍼 프레스' 고객 초청 시연회



더 없이 화창한 지난 5월 2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SIMPAC 프레스테크노센터 6층 강당에서 'DTL4-2500T 트랜스퍼 프레스' 시연회가 열렸다. 고객 초청 행사로 마련된 이번 시연회에는 SIMPAC의 고객사 담당자 9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고의 제품을 향한 SIMPAC의 열정과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날, 'DTL4-2500T 트랜스퍼 프레스' 시연회 현장을 들여다 보자.

푸르른 5월의 바람이 기분 좋게 뺨을 스치는 날. 오후 2시의 예정된 행사를 앞두고 참석자들은 SIMPAC 사옥 6층의 야외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참석자들은 고객을 초청해 진행되는 이번 시연회에 뜨거운 관심과 기대감을 보였다. 오후 2시가 되자 6층 강당에서 국내영업팀 정영길 부장의 사회로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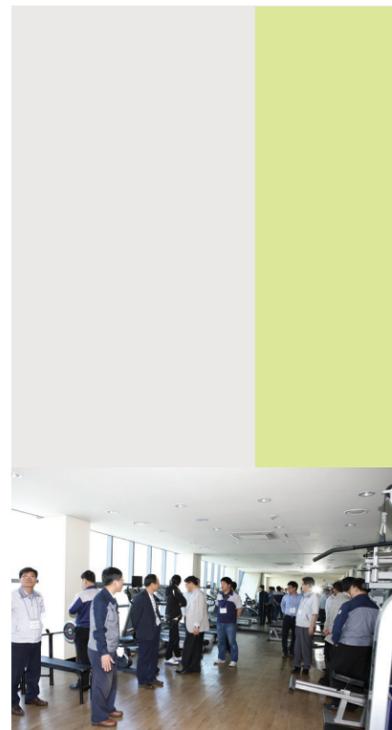
"SIMPAC의 역사는 고객사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IMPAC은 국내 최고의 프레스 제조사에서 세계적인 프레스 제조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먼저 SIMPAC을 소개하는 회사 홍보 영상이 상영되었다. 프레스로 시작해 프레스로 기업을 일군 SIMPAC이 국내를 넘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프레스 메이커'로 성장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보여졌다.

오늘날 SIMPAC의 발전은, 고객사의 관심과 격려 덕분

SIMPAC의 소개가 끝나고 최진식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그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열었다.





“올해로 SIMPAC은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경영을 맡은 지 만 12년째입니다. 그 동안 SIMPAC에 성원을 보내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제품이 오늘날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덕분입니다. 지난 12년간 SIMPAC은 오직 프레스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검단에 세우는 등, 모든 자본을 프레스만을 위해 투자해 왔습니다. SIMPAC은 늘 더 나은 프레스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오늘 여러분께 그것을 보여드릴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SIMPAC은 누구보다도 가장 앞선 품질의 프레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노력하는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객 여러분의 모든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진식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R&D부부장인 정경수 이사의 진행으로 '2500T 트랜스퍼 프레스 라인'의 개발 과정 및 특징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다. 트랜스퍼 프레스의 개요와 설비 사양, 특징, 프로젝트 진행, 품질 보증 체계, 사후 관리 시스템 등 상세한 소개와 함께 프레스 기계가 작동하는 동영상도 상영되었다.

고객 초청 시연회 계기로, 고객 가치 실현 및 품질 강화에 더욱 박차

트랜스퍼 프레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SIMPAC의 사무 및 복지공간인 프레스테크노 센터의 5층부터 4층, 3층, 2층을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근무 환경을 둘러보았고, 이어 프레스 생산 조립장이 있는 공장을 둘러보는 '현장 투어' 시간을 가졌다. 각 자가이드 폰을 귀에 꽂고 안전모를 쓴 다음, 안내에 따라 견학을 시작하였다. 소형 프레스 조립장인 G동을 시작으로, 슬라이드 조립장인 F동, 대형 프레스 구조물과 부품의 가공동인 E동, 대형프레스의 조립장인 C, D동 등을 둘러보고 2500톤 트랜스퍼 프레스의 설치장소인 B동에서의 프레스 시연 참관을 마지막 순서로 하여 현장투어가 진행되었다.

최진식 회장은 참석자들의 견학에 동행하면서 직접 안내하며 공정을 설명해 주었고, 현장 투

어를 마친 뒤에는 다시 6층 강당으로 돌아와 SIMPAC의 서보 프레스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최진식 회장은 참석자들과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나누었고 “귀한 시간을 내주어 참석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말로 행사를 마쳤다.

이날 참석한 (주)동양매직 이관우 부장은 “SIMPAC은 국내 프레스 제조기업 중 독보적이며, 또한 세계적인 프레스 메이커인데 이번 시연회를 통해 그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주)동화산업 장봉규 부장은 “끊임없이 도약하고 발전하는 회사답게, 제품에 대한 기대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라면서 “앞으로 SIMPAC이 또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열린 'DTL4-2500T 트랜스퍼 프레스' 고객 초청 시연회를 계기로, SIMPAC은 고객 가치 실현, 무결점 품질 강화, 투명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나아가 SIMPAC은 프레스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선도하는 프레스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SIMPAC 개발! 초대형 트랜스퍼 프레스 DTL4-2500T



■ 주요 사양

PRESS				
항목	단위	사양		
TONNAGE	ton	2500 (1500+1000)		
TYPE OF DRIVE	-	LINK DRIVE		
NO. of SLIDE	-	1SLIDE(PLUNGER GUIDE TYPE)		
NO. of SLIDE SUSPENSION POINT	-	4		
LIMIT OF CAPACITY	mm	13		
SLIDE STROKE	mm	750		
BOLSTER DIMENSION	mm	6300 x 2400		
DIE HEIGHT	mm	1200		
DIE HEIGHT ADJUST	mm	400		
NUMBER OF STAGES	-	4(표준), 5		
OPERATION SPEED	연속	spm 10 - 25		
	단속	spm -		
MAIN MOTOR CAPACITY	Kw	DC 315		
NUMBER OF MOVING BOLSTERS	SET	2 (Front-back)		
DIE CUSHION	TYPE	-	Pneumatic	
	CAPACITY	No.1 station	ton	150
		No.2 station	ton	-
		No.3 station	ton	80
		No.4 station	ton	-
	STROKE	mm	300	
	PAD DIMENSION	mm	1500x2000	
	STROKE ADJUSTMENT	mm	250	
LOCKING	-	No		

자동화 장치		
항목	단위	사양
TRANSFER FEEDER	TYPE OF DRIVE	TRI-AXIS OPERATION WITH SERVO DRIVE
	FEED STROKE	mm 1500(표준), 1200
	CLAMP STROKE	mm 0 ~ 400
	LIFT STROKE	mm 0 ~ 300
	FEED HEIGHT FROM	mm 650
DESTACK SHEET FEEDER	LAYOUT OF STACKS	T-type
	MATERIAL OF BLANK	Cold & hot-rolled steel
	BLANK SIZE IN FEEDING DIRECTION	mm 200 - 1000
	BLANK SIZE IN WIDTH	mm 600 - 1900
	BLANK THICKNESS	mm 0.5 - 3.0
TELESCOPIC CONVEYOR	BLANK WEIGHT	kg Max. 15
	CONVEYOR IN WIDTH	mm 1600
	CONVEYOR IN HEIGHT ADJUST (BOLSTER ABOVE)	mm 400-600

Q&A

우리 제품을 소개합니다

SIMPAC 개발팀 송경희 팀장



개발 취지는 무엇이며 기존 제품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초대형 트랜스퍼 프레스에 대한 기술확보를 위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진경쟁사와 대등한 위치를 점유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매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제품들과의 차별점은 초대형 능력 및 프레스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능력 2500ton(좌: 1500ton, 우:1000ton)
- BOLSTER 좌, 우 크기 : 6300

개발과정에서 어려움 없었는지요,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셨나요?

처음 시도해보는 만큼 기계구조 확정 및 제작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진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토론과 정보수집을 통한 벤치 마킹, 다양한 부분 엔지니어들의 의견 수렴 및 수많은 기술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외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초대형 트랜스퍼 프레스를 개발한 당사의 기술력 및 제조능력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며, 첫 개발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완성도에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발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양하게 초대형 트랜스퍼 프레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의 활약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주세요.

초대형 트랜스퍼 프레스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2SLIDE TRANSFER 및 MODULAR PRESS 등의 다양한 초대형 프레스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DTL4-2500T 트랜스퍼 프레스 기본 특징 및 용도

특징

- ▶ 좌, 우측 하중분포의 상이에 따른 기구학적 설계 및 편심하중 대응 설계
- ▶ 당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Scotch York 방식 Link Drive 구조 적용
- ▶ 심플하고 강한 강성을 가진 구동부 구조
- ▶ 9조기어 적용 및 마들기어, 드라이브피니언 더블헬리컬 기어 적용
- ▶ 우수한 성능의 BLOCK 건식 C/B 적용
- ▶ 편심하중 대응용(4포인트 감지) 과부하보호장치 적용

용도

- ▶ 각종 자동차 부품 성형



캐나다에서 온 씨제이 알렌이 말하는 나의 SIMPAC, 나의 한국생활

SIMPAC 경영관리팀에는 캐나다에서 온 영어강사 씨제이 알렌 | C.J. Allen | 이 있다. 한국에 온 지 6년 차인 그는 SIMPAC에서 영어 교육을 맡고 있으며 해외영업팀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올 가을이면 한국인 아내와의 결혼 3주년이 된다는 알렌과 함께 한국 생활과 SIMPAC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고민할 때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에는 경쟁이 무척 심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친구들이 제게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떠냐고 했지요. 한국에 가서 1년쯤 영어를 가르치고 돌아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내를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살다 보니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6년이 되어 지금에 이르렀답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아내는 제가 친구들과 자주 다니는 아이리쉬 펍(Irish Pub)의 매니저였어요. 저는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죠. 하지만 테이트를 신청할 때마다 매번 거절당했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영어공부를 하고 싶다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아마 영어 공부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랬겠죠! (웃음) 4년 전에 만났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어요. 제가 1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3개월 정도 캐나다에 다녀왔는데, 그 때 그녀가 캐나다로 여행을 왔더군요. 같이 나이가가라 폭포를 보러 갔을 때 제가 청혼을 했죠. 그런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을 했고, 캐나다에 가서 또 한 번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국에 와서 SIMPAC에 입사하기 전까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부천에 살면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음 2년 동안은 중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로 근무했구요. 학생부 소속이어서 주로 학생들의 싸움을 맡렸지요. (웃음) 그리고 'NEH(네)'라는 이름의 영어잡지를 창간해 편집장으로 일하다가 CJ ENM에 입사했고, 엠넷 아메리카의 TV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짱'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인데, 영어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어서 PD와 메인 작가를 겸했습니다. 그 이후에 SIMPAC에 입사했지요.

SIMPAC에 입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CJ ENM에서는 거의 매일 야근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요. 저의 건강과 시간을 되찾기 위해 그만두었어요. 작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저녁에만 SIMPAC에 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부장님 한 분이 정식직원으로 입사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결정하게 되었죠. 지금 SIMPAC에서 일한 지는 5개월 정도 되었네요. 지금 제 일터인 SIMPAC이 다른 어느 곳보다 마음에 들어요.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는 동안 재미있는 경험도 많았겠어요.

아내를 만나 한국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서 많은 기회가 있었죠. '짱'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재능이 많은 음악가와 가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일

이라면, 재능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서 프로듀싱하는 건 저의 취미예요. 인디밴드들을 발굴하고, 앨범도 내고, 홍대나 이태원에서 공연을 열기도 해요. 6월 말에는 '탑 탤런트'라는 온라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가 심사위원을 맡아요. 저와 샘 해밍턴, 미수다의 브로닌 등이 심사위원이예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문화적 차이를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사실, 저는 한국 문화와 사람들이 참 좋아요. 한국 사람들의 '눈치 보기', '기분 맞춰주기' 이런 문화가 특히 좋아요.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것이랄까?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우선하는, '정'이 있는 문화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비즈니스 스타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먼저 연락하고, 만나고, 다음에 또 만나고, 그런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관계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의 비즈니스는 좀 직접적이라고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절충하면 돼요. 두 번, 세 번 만나지 않아요. 소주나 삼겹살이 필요 없죠. (웃음)

두 번째로 느끼는 문화적 차이는 공간의 개념이예요. 캐나다에서는 걷거나, 지하철을 탔을 때 누군가와 부딪히면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롯





한 서구 사람들은 자신만의 공간 개념이 있거든요. 나를 둘러싼 일정한 공간은 '내 공간 이니까 침범하지마!'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주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굉장히 가까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햄버거나 피자만 먹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것만 먹진 않아요. 우리도 나름 균형 있게 식사를 해요. (웃음)

SIMPAC에 대한 첫인상과 지금의 느낌이 궁금합니다.

SIMPAC은 프레스를 만드니까, 처음에는 그냥 제조업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조업에 종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었고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편안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니까 그랬겠지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는 걸 수줍어하더군요.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은 SIMPAC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영어로 대화하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고, SIMPAC에서 많은 친구들이 생겼으니까요.

SIMPAC에서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SIMPAC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직원들이 영어로 말하기를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했지요. 5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발전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말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뿌듯하죠.

효과적으로 업무에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예요.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버려야지요.. SIMPAC은 글로벌 기업이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해요. 만약 SIMPAC에 해외 고객들이 방문하는 경우, 고객과는 영어로 이야기하고 SIMPAC인들끼리는 서로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고객은 오해를 하게 되겠지요.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

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고객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면 평소에도 서로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연습이 되어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팁이예요.

SIMPAC인 여러분, 영어를 편안하게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Trying is not doing. Doing is doing. You will try? You can never do that. Trying is just 50%. Just do it, and make 100%."

“Trying is just 50%.
Just do it, and
make 100%”



평생을 칭찬합니다

SIMPAC메탈로이 1공장
강오복 주임이 정진교 사원에게



칭찬하고 싶은 SIMPAC인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요?

상주근무조의 마스코트! 설비반(공무파트) 정진교 사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항상 밝게 웃는 얼굴로 선배들에게 예의 바르게 잘하며, 힘든 업무 중에도 용접 등의 작업의뢰에 흔쾌히 응해주는 기본 좋은 동료입니다. 밝은 웃음으로 '행복 바이러스' 퍼트리고 있는 Smile man. 그의 이름은 진교!

두 분은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사내 등산 동호회인 '길벗 산악회' 회원으로 등산이나 단합행사 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워낙 술을 좋아하는 주당들이라 늘 흥겹게 술잔을 나누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SIMPAC메탈로이 2공장
김윤성 과장이 김인섭 반장에게

칭찬하고 싶은 SIMPAC인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요?

가공반의 작은 거인 김인섭 반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김인섭 반장은 다른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일도 불평 없이 술선수범하여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작업 개선제안에 늘 앞장서서 나서는 등, 업무에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직원들도 "아저씨"가 아닌 "행님"이라 부르게 만들 정도로, 모든 이들과 늘 밝게 웃으며 지내는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진 가공반을 하나로 단결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굳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마른 체격과 깡다구^^가 아닐까요? 김인섭 반장의 취미가 낚시인걸로 알고 있는데, 날씨 좋을 때 꼭 한 번 낚시를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직장과 인생 선배로서의 김인섭 반장과 고기도 낚고 인생도 함께 낚으며 '참 소주'에 희망의 노래(노래방에서?)를 함께 즐기면 좋을 듯 싶습니다.



SIMPAC NEWS

SIMPAC홀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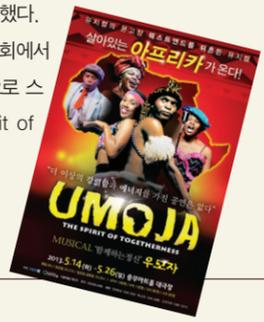
SIMPAC그룹 Young Leaders Workshop 실시

○
 지난 3월 8일-9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용평리조트에 SIMPAC그룹 각 계열사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대리과 과장들이 모여 1박 2일 일정의 Young Leaders Workshop을 실시하였다. SIMPAC그룹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총 9개조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된 이날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은 대화와 발표를 통해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진식 회장은 경영철학과 향후 인재육성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을 독려했고, 모두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머리를 맞대고 열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번 워크샵은 토론 발표 일정뿐 아니라 첫째날 저녁에 Beer Party, 둘째날 오전에는 스키를 함께 타며 끈끈한 동료애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계열사 사원 100여 명이 모여 뮤지컬 '우모자' 관람

○
 지난 5월 15일 저녁 8시, 서울 흥인동 소재 충무아트홀에서 최진식 회장 주관 아래 SIMPAC그룹 계열사 사원 약 100여 명이 모여 뮤지컬 '우모자'를 관람했다. 이날 행사는 SIMPAC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일꾼들의 사기를 독려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공연 전 신당동 떡볶이 타운에서 배부르게 저녁식사를 마친 이들은 공연 후에는 뮤지컬에 대한 감흥을 안고 맥주파티를 즐기며 훈훈하게 하루를 마감했다.
 이날 관람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뮤지컬 '우모자'는 원시 부족사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아프리카인들의 역사를 다룬 작품으로 스와힐리어 말인 '우모자(Umoja)'는 '함께하는 정신'(The Spirit of Togetherness)이라는 뜻이다.



SIMPAC

수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 실시

○
 지식경제부 윤상직 장관이 지난 3월 14일 SIMPAC을 방문하여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이 직접 FTA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각 기업 실무자와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형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업무과정에서 겪고 있는 FTA 원산지 관리, 사후검증 대비, 엔저에 따른 수출애로 문제들을 격의 없이 실무중심으로 생생하게 이야기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정부 측 관계자와 FTA 활용 및 엔저(低) 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SIMPAC 등 중·중소기업 6곳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SIMPAC은 협력기업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원산지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자체 구축한 원산지 관리시스템에 원가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제3자가 시스템을 점검할 경우 경쟁사에 정보 등이 누출될 가능성 등, 시스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은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등의 장·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원산지 관리,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유의점, 자체 관리방안을 제언하는 등 실무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윤상직 장관은 향후 FTA활용 활성화와 엔저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FTA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확대하고, 환변동 보험 홍보 및 관련 정보제공 강화를 실시할 것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였으며, 이와 함께 참석기업들에게 FTA활용 업무에 대한 인식을 부가적인 업무에서 상시적 업무로 전환하고, 기술개발, 적극적 시장개척 등으로 엔저를 우리 수출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SIMPAC NEWS

SIMPAC메탈로이



7년 연속 임금 무교섭 조인식



지난 3월 18일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7년 연속 임금 무교섭 조인식이 이루어졌다. 철강 경기 침체와 국가안보 불안 등의 대내외 요인들로 인해 회사와 가계가 모두 어려운 지금, SIMPAC메탈로이 구성원 모두는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금동결 및 무교섭으로 임금협상 조인식을 마쳤다. 어려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SIMPAC메탈로이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에서 지금의 어려움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이사 이취임식



지난 3월 19일 제5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이취임식이 주주총회가 끝난 후 본사 1층 강당에서 이어졌다. 2006년 회사가 인수 합병되는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여 7년 동안 지금의 SIMPAC메탈로이를 이끌었던 이상일 사장은 이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송호석 사장이 취임하였다. 이날 모인 많은 사람들은 그 동안 회사를 잘 이끌어준 이임 사장에게는 노고와 감사의 박수를, 취임하는 송호석 사장에게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잘 극복해 더욱 발전하는 SIMPAC메탈로이를 만들어 달라는 기대의 박수를 보냈다.

심봉사 이야기 (심팩메탈로이를 사랑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



1. 비 오는 토요일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

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히 내리는 4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어김없이 심봉사 회원들은 나전복지마을에 모였다. 특히 오늘은 회원들의 급여에서 끝전(천원 이하 금액)을 모아 기부하는 무지개지역아동센터의 풍물단 "물" 친구들이 나전복지마을의 중증 장애우들을 위해 신명 나는 우리가락 공연을 펼치는 날이라 더욱 뜻 깊은 하루였다. 새로 지은 나전복지마을 강당에 웅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 사이로 팽과리와 북, 장구, 징 등을 치며 삼모를 돌리고 등장하는 어린이들 모습에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덩실덩실 어깨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전복지마을 초입 갈림길에서는 우리 회원들이 직접 용접하여 제작한 입간판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비록 쌀쌀한 날씨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였다.

2. 사랑을 가득 품은 만두

식당을 운영하는 심봉사 회원 어머니께서 이들의 선행에 동참하고자, 주말 점심 장사를 제쳐두고 나전복지마을 장애우 친구들을 위해 양손 가득 만두 재료와 찜기 등을 가지고 오셨다. 하얀 만두피에 곱게 다진 만두소와 함께 사랑을 듬뿍 담아 하나 하나 정성껏 빚은 만두로 끓인 만두국으로 그날 점심은 배도 마음도 뽕뽕하게 부른 하루였다. 회원 어머니와 여성 회원들이 식당에서 만두를 빚는 동안 나머지 회원들은 나전복지마을 마당에 일군 "사랑이 자라는 텃밭"에서 감자와 고추, 옥수수 등을 심으며 텃밭을 가꾸었고 점심시간이 되자 심봉사 회원들과 나전복지마을 식구들은 한데 모여 맛있게 만두국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웠다.



다른그림찾기

윗쪽 사진과 다른 점이 아래쪽 사진에 네 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른쪽 답지에 체크하여 6월 28일까지 각 사 사보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다른그림찾기 지난 호 당첨자

SIMPAC 전산팀 · 정원식
 SIMPAC메탈로이 전기로 C조 · 김성일 | 품질안전팀 · 함선옥 | 가공반 · 이정형
 SIMPAC메탈 전기로 D조 · 박재갑

오아시스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멈추어 쉬어야 할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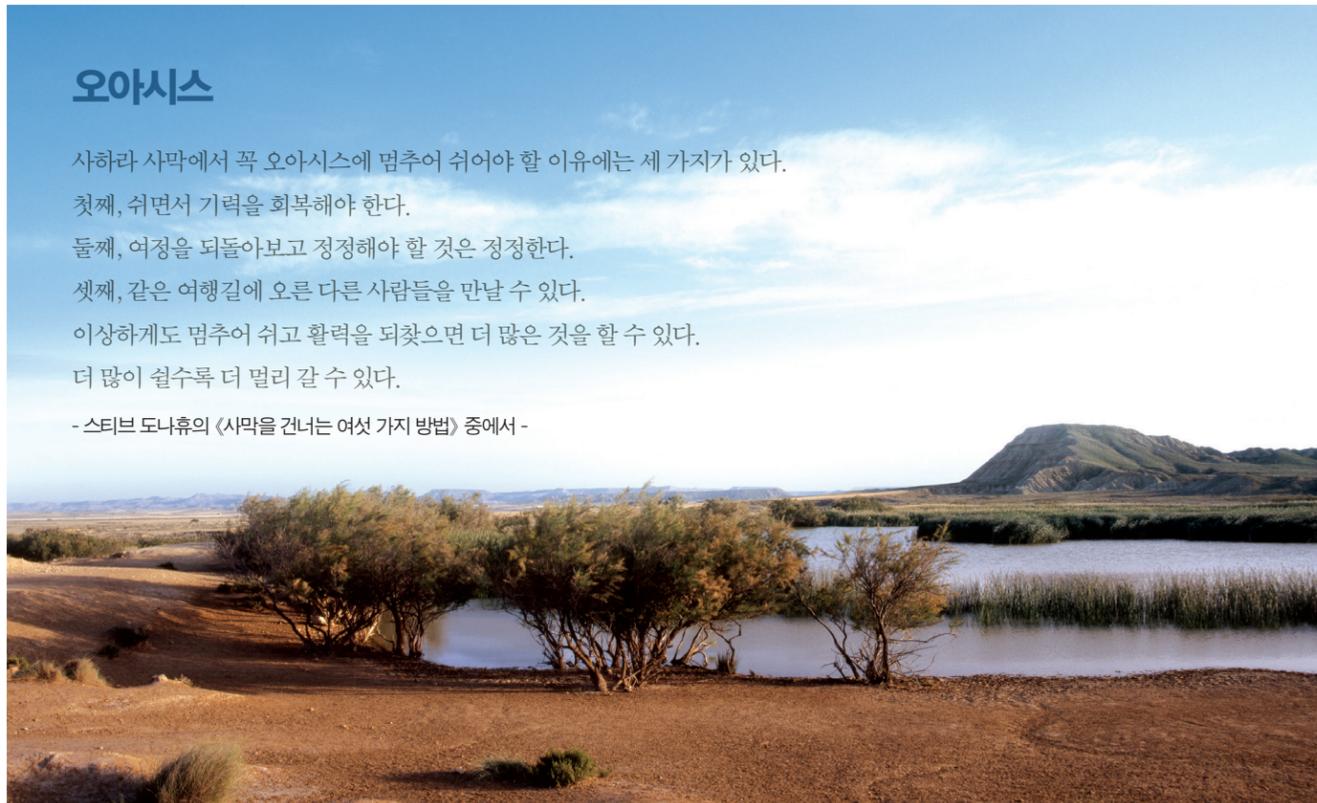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상하게도 멈추어 쉬고 활력을 되찾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더 많이 걸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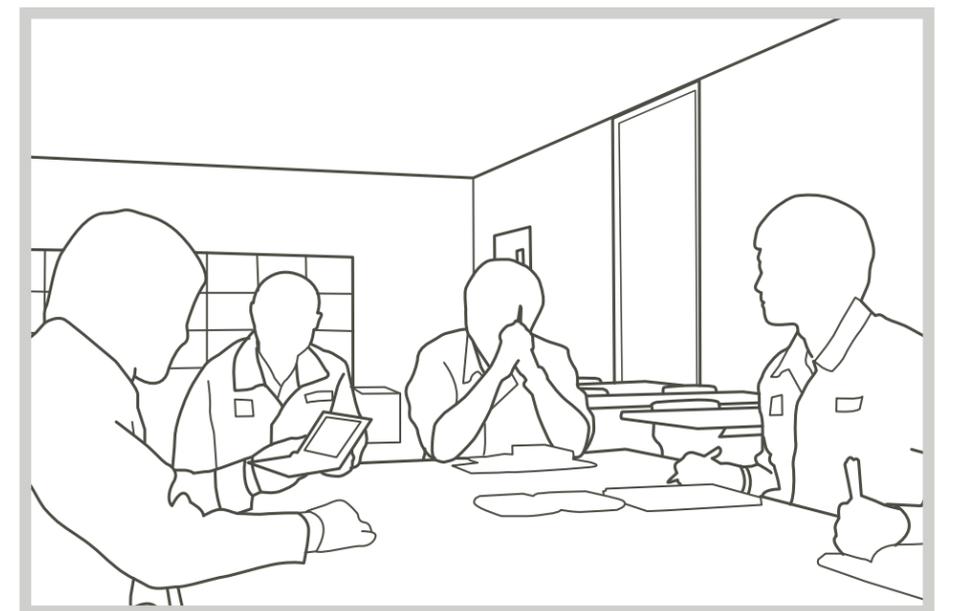
다른그림찾기 답지

답은 총 네 군데에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세요.

〈참가자 정보〉

소속:

성명:



최초 개발, 최고 품질!

대한민국 합금철 생산의 역사는 SIMPAC메탈로이가 만들어 갑니다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에 대한 명성을 이어 오다!

SIMPAC메탈로이는 1959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강공정의 필수소재인 합금철을 개발, 생산하며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철강분야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SIMPAC메탈로이만의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에 대한 명성을 꾸준히 이어 온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고순도 페로망간 생산을 위한 SIMPAC메탈 당진공장을 설립함으로써 폭넓은 합금철 포트폴리오를 완성, 명실공히 종합합금철 메이커로서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전략에 발맞추어 세계 유수의 철강업체들이 활동하는 국제망간협회 IMnI(International Manganese Institute) 총회를 우리나라 최초로 국내에 유치하는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합금철 역사의 발전을 이끌어 온 SIMPAC메탈로이, 그간 고객 여러분이 보내준 변함없는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데에 앞장 서겠습니다.

IMnI International Manganese Institute Conference

Korea plays a pivotal role
in the global steel industry

세계 철강 산업의 중심이 대한민국에서 만난다!

합금철의 역사, (주)SIMPAC메탈로이와 함께 하다

1959년 대한민국 최초 합금철 개발/생산
2008년 업계 선두주자로서 코스닥 상장,
2009년 무역의 날 3천만불 수출탑 수상
2011년 국제망간협회 총회, 국내 최초 유치
한국거래소 발표, 우량기업부 선정
美 포브스지 발표, "2011 아시아 200대 중견기업" 선정
전액 출자/설립한 SIMPAC메탈의 당진공장 본격 가동

